



미꾸리

〈*Misgurnus mizolepis* GUNTHER, 길이 12~15cm〉

우리나라에 알려져 있는 미꾸리의 종류는 모두 4속 8종이다. 8종의 미꾸리 중에 양식을 하는 것은 *Misgurnus anguillicaudatus*(CANTOR) 미꾸리 한종뿐이다. 지방에 따라서 미꾸리를 동글이, 미꾸라지, 논미꾸라지, 중미꾸라지로 부른다. 우리가 알고 있는 미꾸라지는 미꾸리속의 한 종류로 *Misgurnus mizolepis* GUNTHER이다. 이 미꾸리는 논두렁, 늪 같은데 서식하고 있으며 비늘의 수, 색채 등은 서식장소에 따라 다르다. 일반적으로 좋은 토질에 햇빛이 잘 쏘이며 수질이 좋은 곳에 사는 미꾸리는 검푸른 갈색의 많은 무늬가 있고, 이와 반대로 햇빛이 잘 들지않고 토질이 나쁜 곳에 살고 있는 미꾸리는 옅은 무늬를 가진 미꾸리가 되는 경향이 있다. 또 타 어종과 같이 산란기에는 일반적으로 선명한 색채를 띄어 혼인색이라고 부른다. 미꾸리는 몸 크기가 일반적으로 수컷이 작아서 전장 12cm 이하이고 암컷은 13cm 이상으로서 평균 체장이 15cm 전후인 것이 많으며 자연산 미꾸리의 암수 비율은 암컷이 수컷보다 20~30% 정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. 미꾸리는 특이하게도 수면에서 공기를 들이마시는 장호흡을 할 수 있어 물속에 산소가 부족해도 버틸 수 있으며 온도가 5~6℃ 이하로 내려가거나 34~35℃ 이상 올라가면 진흙속으로 파고 들어가 있어 약간의 습기만 있어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. ㉔

출처 담수어 양식 기술과 유통 / 한국 농축산 유통 연구원